

대구파티마병원

▶ 추석



9월 7일 코로나로 가족들의 면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와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떡과 식혜를 나누며 한가위의 풍성함을 나누었다. 일상에서 맞는 특별한 날들을 함께 함으로써 기분을 전환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 10월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캠페인



10월 12일~20일 완화의료주간을 맞이하여 병원 내 다양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완화의료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병원 직원들이 호스피스를 올바르게 알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호스피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제작하여 2021년부터 부서별로 찾아가는 완화의료주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필수인력 소진 예방프로그램



10월 29일 필수인력의 소진 예방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만다라 치료를 하였다. 그림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과 동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팀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팔공산 농막에서 이루어져 자연 속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였고,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여 가을소풍이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초복, 말복 행사

7월 14일, 8월 12일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무더위에 지

친 환자와 가족을 위해 삼계죽을 나누었다. 함께 영양 보충하고 힘을 내는 시간이었다.

▶ 추석



9월 7일 병동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맛있는 송편을 비롯한 떡을 나누었다. 가족과 함께 송편에 얹힌 추억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 완화의료주간 홍보 행사



10월 27일 로비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퀴즈를 맞히고 기념품을 나누는 홍보 행사를 하였다. 또한 대전 충청 권역의 호스피스 종사자가 함께 모여 보문산 공원에서 홍보 행사를 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긍정적인 인식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 자원봉사자의 날(본원)



11월 11일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로 1년 개근상과 10년, 20년 근속상을 드리는데 올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6명이 10년 근속상을 받았다.

제리눔병원

▶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8월 26일~10월 27일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자원봉사자 활동을 부활시키고자 마음의 재정비를 위해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컬러테라피” 6회기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

였다. 색채를 통해 자신이 느끼고 있던 의식과 무의식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 탐색하고 자신을 찾아가며 봉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의 날 주간 행사



10월 20일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호스피스로 마음을 채우다”를 진행하였다. 호스피스 공감 스토리툰을 전시하여 감상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을 메모지에 적어서 부착해보기도 하고 수제 아로마 립밤을 선물로 받기도 하였다. 병원 직원 및 환자와 내원객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사별가족 추모식 및 추모 미사



11월 8일 “별이랑 호수랑” 사별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중에 입원하여 사별하신 가족들과 함께 추모식 및 추모 미사를 드리며 임종하신 환자분들을 기억하고 사별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미사 후에는 사별가족들이 떠나보낸 이들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성모병원

▶ 봉사자 월례회 재교육



10월 17일 활동과 모임이 중단되었던 긴 코로나 여정 속에서 한자리에 모여 얼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옆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 사랑 실천임을 상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 유재라 봉사상 수상 김영희 봉사자

10월 19일 사회봉사의 일념으로 평생을 살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유한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 유재라 여사의 숭고한 삶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상에 본원 김영희 봉사자가 복지 분야에서 수상하였다.



▶ 완화의료주간 호스피스의 날 기념, 캠페인



10월 28일 코로나로 움츠러든 시간 속에서도 일상은 흘러가고 암환자는 줄어들지 않는 세상.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아직도 일반화되지 않은 호스피스 인식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팀원과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하며 안정된 여명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제대로 알리기 시간을 마련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추석 행사



9월 8일 추석을 맞아 입원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먹거리로 추석 행사를 가졌다. 병동 휴게실에는 추석 분위기를 내고,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봐!’ 이벤트와 한복과 머리 장식을 자유롭게 착용해볼 수 있도록 하여 사진 촬영도 하였다.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에서 맞이하는 풍성한 한가위 행사에 감사함을 전했다.

▶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국내 최초의 병원 호스피스, 최고의 호스피스” 10월 6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疫료를 알리고 호스피스완화疫료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하였다. 국내 최초의



병원 호스피스로 시작하여 최고의 호스피스를 자랑하는 역사를 가진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우리 병원의 자부심을 알리고, 관련 종사자에게 응원의 댓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응원의 댓글이 모아졌으며, 교직원이면 누구나 호스피스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원내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기도 하였다.

▶ 전체 사별가족 모임 개최



11월 24일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전체 사별가족 모임을 하였다. 1년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임종한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총 91명의 가족이 함께하였다. 이날 행사는 고인과 함께한 추억 사진을 미리 받아 추모 영상을 만들어 상영하였고, 스톤 테라리움 '비석 만들기', 꽃 봉헌,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인을 추모하며 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가를로병원

▶ 한가위 맞이 송편빚기 이벤트



2021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면회객도 통제되어 환자는 물론이고 한 사람만 상주해야 하는 보호자까지 병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절이 다가와도 그 분위기를 누릴 수 없는 상황~ 집에서 느끼는 명절 준비를 위한 송편 만들기 이벤트를 시행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캠페인

10월 15일 무등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무등산 문빈정사 입구에서 광주 전남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7개 기관 실무자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시원한 여름나기 시리즈



7월 15일, 8월 17일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기 위해 시원한 여름나기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시즌 1에서는 여름 과일(수박, 참외 등)과 팔빙수를 전달하였고, 시즌 2에서는 수박화채를 만들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선물하고 수박 모자, 수박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사진촬영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한가위 이벤트



9월 8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한가위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1부는 밝은 보름달을 파스텔로 표현하고 소원을 적어보는 활동으로, 2부는 코너 속의 코너 '한가위 삼행시 짓기'를 통해 best 5를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한가위를 맞아 환우분들께 말랑한 오란다를 전달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모두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사랑의 빼빼로 데이 이벤트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를 맞이하여 사랑의 빼빼로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환자 및 보호자들이 알록달록한 색의 초콜릿, 다양한 토핑 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빼빼로를 만들어 서로 나누며, 고마움 및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 및 보호자는 색다른 활동에 신기함과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여름맞이 작은 음악회

8월 5일 여름휴가를 가지 못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여름맞이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완화의학과 김재민 교수님과 한소영 간호사가 재능기부로 피아노 연주를 해 주었고, 영남대 교수님께서 웅장하면서도 굽은 첼로 선율로 모두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다.

▶ 가을 소풍



9월 16일 투병 생활로 지친 환자와 가족의 소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옥외정원으로 소풍을 다녀왔다. 감염병 방역 지침으로 제한된 정원으로 다녀왔지만, 추억의 보물 찾기, 가족과 함께 나누는 간식은 행복, 그 자체였다.

▶ 호스피스 날



11월 3일~4일 2022년 호스피스 날 행사는 교직원 대상으로 "호스피스 4행시"와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O,X 퀴즈를 진행하였다. 총 940명이 참여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심청이(소원성취) 프로그램

- 엄마의 마지막 생일잔치



11월 10일 임종방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8남매의 자녀들이 심청이 소원 편지를 작성하여 마지막 생일잔치를 준비해드렸다. 따뜻한 흰쌀밥과 미역국, 케이크를 준비해

드리고 가족은 신선한 과일과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생일상이 되었다. 가족에게는 행복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표현해 주셨다.

익산성모병원

▶ 교육

6월 24일 전북지역암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에 봉사자 5명이 참석하였고, 6월 30일~7월 8일 3차에 걸쳐 전북대학병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에서 주관하는 사별가족 돌봄 제공자 양성과정 교육에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이 참여하여 수료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6주년 기념



9월 22일 호스피스병동 6주년을 맞아 김기곤 사제께서 6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해 주시고 환자, 가족 팀원들이 한데 모여 호스피스의 연혁과 그동안의 과정과 노고에 감사하는 병원장 수녀님의 인사와 축하 나눔이 있었다.

▶ 소진 프로그램



10월 6일 팀원 7명이 완주 힐조타운에서 들레길 산책, 즉석으로 피로 풀기, 글램핑 안에서의 저녁 식사와 불명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8일 커피 drip bag 만들기를 하여 서로가 만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코로나 시대에 병동에서의 감염관리의 어려움을 서로 도우며 잘 극복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10월 12일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을 맞아 병원 로비에서 홍보활동이 있었다. 퀴즈 맞추기와 홍보 물품을 증정하며 3개 기관의 직원, 환자, 보호자, 외래환자까지 200여 분 참석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 이벤트

환자, 가족이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5월 20일 원두팍차 만들기, 7월 14일 힐링푸드 만들기, 7월 21일 사랑의 도시락 나눔, 9월 1일 뽕쇼 만들기, 10월 27일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11월 16일 최 0순 생신 축하를 해드리며 정서적 지지를 해드렸다.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 영적 돌봄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6월 11일~7월 9일 매주 토요일 원목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2기 영적 돌봄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 대상자의 증상 및 영적 돌봄, 생애 말기 의사소통,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 관리 및 소진 예방 등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간 화상 및 대면 강의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직할 병원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에서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총 23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다.

▶ 호스피스 완화돌봄 개정판 출간



'호스피스 완화돌봄' 책은 2006년 호스피스연구소에서 출간된 이후 호스피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호스피스 완화돌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짐에 따라 그간의 국내외 호스피스 완화돌봄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고자 다학제 호스피스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2022년 6월 개정본을 출간하였다.

▶ WHO 협력 센터 4차 포럼 참석



11월 28~29일 제4차 서태평양 지역 WHO 협력 센터 포럼이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되었다. WHO 협력센터

인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에서는 소장 박미현 교수와 국제협력 부장 김수정 교수가 참석하여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서태평양 지역 내 도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을 위해 실시한 국제교육, 세미나 등을 소개하는 포스터 전시를 하였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협력 센터들과 팬데믹 시대 속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제3회, 4회 이사회

8월 12일 제3회 이사회에서 제22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일정과 유한재단 유재라 봉사자상 추천에 대해 논의하였고, 10월 17일 제4회 이사회에서는 제22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평가와 통권 75호 협회지 발간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22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9월 14일~15일 1박 2일로 정하상 교육회관에서 전국 10기관 96명이 참석하여 김용덕 신부님의 특강(내려놓음)과 그룹 나눔을 하고, 처음으로 음악 피정(대전 위드팀)도 하였다. 2일 차에 아침 일찍 성지 순례(황새바위)를 다녀와서 미사와 우수봉사자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2일간의 바쁜 일정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 한 행사로 봉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수봉사자상 수상자 명단		
2022-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정숙
2022-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미경
2022-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미자
2022-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박미영
2022-5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송영선
2022-6	부산메리놀병원	이정희
2022-7	부산성모병원	김여정